월/요/광/장

고영을

맞벌이 시대의 부부 역할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 시대가 변하여 여자도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한 발 더 나아가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다.

하지만, 집안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기도 여자가 낳고 밖에 나가 돈도 벌어야 하고 집에서는 또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어린이 양육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어린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곳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시댁이나 친정에서 아이들의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옛날에는 딸이 결혼을 하여 힘들게 살면 딸 낳은 게 죄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딸을 낳아 가르친 게 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맞벌이한다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어떤 엄마는 어질어진 집안 꼴을 보고는 발을 뻗은 채 펑펑 울었다고 한다. 주부에게도 가끔은 주부가 필요하다는 말이 생각난다.

맞벌이 부부의 필수 조건은 집안일 분담이다. 맞벌이 남편이 집안일을 할 때 아내 일을 도와준다는 표현을 하지만 "도와준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 내 몫이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맞벌이 아내의 가장 큰 불만은 집안일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불만이 쌓이게 되면 부부간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어떤 맞벌이 주부는 모든 집안일까지 도맡다 보니 남편이 양심 없게 보이기 시작하더란다. 결국은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았는데 그 근원이 집안일이 된 셈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사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당연히 해야 할 자기 몫이라는 것이다. 옛날에는 돈 버는 것은 남자가 할 일이고 여자는 아기 낳아 잘 기르고 집안 살림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여자가 돈을 번다고 바깥일을 하면 팔자가 세다는 말까지 있었다. 맞벌이가 당연시되고 있는 지금은 가사도 당연히 분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집안일을 같이하는 부부가 금슬도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가까운 선배가 있다. 그 선배도 맞벌이인데 남편은 날마다 술 먹고 잔소리하는 다혈질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선배는 남편을 아침마다 출근을 시켜주는데 운전도 못하면서 곁에서 잔소리만 해대니 정말 미워지더란다.

계속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커지자 어느 날 반성을 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타인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하며 살던데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자"라고 말이다. 그때부터는 본인의 마음이 편해지고 남편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실 말이지만 가족처럼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는가. 옆집 남자, 옆집 여자가 챙길 리는 없을 것이다.

부부로 살다 보면 "사랑한다" "고생시켜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에 감동한다. 자주 표현하라.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인색할 일이 아니다.

톨스토이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가족도 사랑하고 직장의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 모두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면 인생이 즐겁다"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순간에 제일 소중한 사람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다. 집에서는 가족이 가장 소중하지만, 직장에 나가면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했다.

최근 "직장에서 회식을 하면 과거에는 여자가 으레 술잔 채워주기를 기다리는데 요즘은 상사가 또 남자직원이 여직원의 술잔을 채워주고, 야외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남성들이 밥상을 차리겠다고 나서니 정말 세상 많이 변했다"고들 한다. 술잔을 채워주고, 밥상을 차리는 남성은 정말 '멋진 남자'로 각인된다. 여자는 작은 것에 감동하는 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루에서, 훤한 낮 시간 동안 보고 있는 동료들은 얼마나 소중한가. 항상 즐겁게, 배려하는 분위기라면 살맛나는 직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쁜 입으로 항상 예쁜 말만 하겠다는 생각이 실천된다면, 또 질책보다는 칭찬의 말이 좋은 분위기 조성에 크게 한 몫 할 것이다. 이렇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진다면, 가정과 직장 생활의 성공이 아닐까. 〈고구려대학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日 대지진 지역경제 파장 최소화해야

일본의 대지진과 원전 방사성 유출사태로 세계경제가 요동치면서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 실물경제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 지역경제도 '대지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대지진 이후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중기청 등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지난 17일까지 239건, 금액으로는 수백억 원 수준이다. 특히 근로자 100명 미만인 업체가 전체 피해신고 기업의 83.8%에 달해 영세기업일수록 타격이 컸다.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액은 지난해 105억 달러로 전체 대일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지역 중소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이어서 일본 대지진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도 급증할 게 뻔하다.

여행사 등 지역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일부 여행사는 지진 발생 이후 일본으로 출발하는 여행상품의 예약 취소율이 50% 이상 달하기도 했다. 지역 관광산업에서 일본 의존도는 절대적이어서 여행업계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농수산물의 대일 수출길이 막히면서 지역 농수산업이 받게 될 타격도 걱정이다. 이상기후와 구제역 등이 겹치면서 휘청거린 지역 농수축산업이 설상가상으로 일본 대지진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나 더 큰 곤경에 빠지게 된 것이다.

지자체 등 당국은 일본 대지진이 몰고올 파장을 세밀히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방사성 누출 등으로 일본 대지진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고, 그 규모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의 일본 대재앙 먹구름에 면밀한 사전 대처가 필요한 이유다.

파업 결정 금호타이어 노조 '파국'은 안 된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78.09%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파업 돌입 여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비조정 절차와 24일께로 예정된 본조정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우리는 노조의 파업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워크아웃 기업이란 채권단과 기업개선 약정을 체결, 자구안을 이행하면서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 이행에 차질이 생기면 최악의 경우 워크아웃 중단까지 갈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으로 지역민에게 걱정과 우려를 끼쳤던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금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회사 회생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채권단의 자금지원으로 회사와 280여 협력업체들이 사실상 '연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우리는 노조 행위에 대해 일체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파업이 진행되면 당장 타이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게 돼 국내 판매망과 해외 수출선이 끊길 수 있다. 신인도 추락에 따라 회사 정상화는 그만큼 멀어진다.

노조가 1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사측에 대화를 촉구하는 압력이고, 조합원들도 파국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측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데도 노조가 앞당겨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협약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극단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회사와 임직원, 지역사회 모두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노사가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이경석

자리 이동과 진실발견을 위한 역할

필자는 처음 변호사로 법조생활을 시작했다. 약 2년여 동안 많은 의뢰인과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짧은 변호사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다. 군에 간 아들이 선임병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병이 발병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사건이었다.

당시 군에서는 사건을 축소하고자 단순 자살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부모는 군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병이 발병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단순 자살이 아니라 순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였다.

그리하여 자식의 명예회복을 위해 보훈청에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청은 망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는 군에서의 가혹행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끝까지 단순 자살로 규정하였고, 결국 망인의 아버지가 필자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필자는 기록을 검토하면서 울분을 금치 못하였다. 꽃다운 생명 하나가 피지도 못한 채 스러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의뢰인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얻어냈다. 필자는 당시 결정을 전해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의뢰인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던 기억이 난다.

현재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필자가 변호사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변호사에서 검사로 자리의 이동은 있었으나 역할이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일 때에는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진실을 주장하였다면 현재는 사익이 아닌 공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 사건을 끝까지 파고들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거나 무고한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 즉 진실발견을 위한 역할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검찰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 파사현정과 범법 필벌을 실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해결해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검사장님으로부터 '任重道遠(임중도원)'이라는 경구를 들은 것이 생각나 몇 자 적어본다. 그 뜻은 '임무는 막중하고 갈 길은 멀다'라는 것인데, 검사의 역할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다. 막중한 임무를 최선을 다하여 실수없이 해나갈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받고 사랑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광주지검 검사〉

기고

이호준

생명의 물 아껴쓰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고 있는 일본 도호쿠(東北) 대지진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마실 물이었다.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생수를 구입하기 위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줄을 서고, 그래도 구하지 못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사진과 영상을 보며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최근 기후변화와 산업발달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마실 물부족문제는 심각한 인류 공통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인구의 20%(약 11억 명)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고, 지구촌의 여러 곳에서 물부족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유엔(UN)이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해 물의 소중함과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겨울과 여름의 강우량 변화가 심한 기상 특성으로 수자원관리가 어렵고,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적으로 2~3일 만에 거의 1년 강우량에 해당하는 800mm이상의 호우가 기록되는 등 급격한 강우량의 변화가 있는 실정이다. 수돗물 절약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광주시에서는 절수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누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노후수도관 교체와 물공급 수압을 일정하게 하는 블록관망 구축사업 등을 통해 2015년까지 유수율을 9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해 들어 상수도관망 최적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또 지속적으로 시민의 물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수·양치·면도는 물을 받아서 합시다' 등 '수돗물 절약 10가지 생활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물의 날을 전후해 상수도 시설물 정비, 정수장 개방과 워터투어, 수돗물 수질향상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 수돗물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광주 수돗물은 청정한 동복호와 주암호를 상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생산관리와 품질관리 체계로 국내 먹는 물 수질기준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도 적합하다. 아울러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민선 5기 시정의 최대 가치인 '시민 행복' 구현을 위해 '수돗물 바로 마시기 대책', '유수율 향상대책', '수돗물 민원 감소 방안' 등 품질관리와 절수대책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

안전한 광주 수돗물 '빛여울수'를 시민이 더욱 가까이서 친근감 있게 접할 수 있도록 아파트 수질안전장치를 설치 운영 중이며, 가정의 수질을 주부가 직접 검사하는 주부수질검사단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수질검사 결과를 매주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수돗물 공급의 많은 상황 등을 종합한 '수돗물 품질보고서'도 모든 가정에 배포하고 있다.

'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2개의 노벨상(노벨평화상과 노벨과학상)을 수상하게 될 것'이라는 제35대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예언은 지구촌에 직면한 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해결이 어려운 일인가를 대변해 주고 있다. 지금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물려 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물 이용 보존을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

無等鼓

슈퍼 문

정월 대보름날 저녁 달이 동쪽에서 솟아오를 때면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뒷동산이나 언덕에 오르곤 했다. 한껏 부푼 만월(滿月)을 보며 소원을 빌기 위해서다. 먼저 달을 보는 사람이 길하다 하여 차례를 다투기도 했다. 농부들은 풍년들기를 기원하고, 처녀 총각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다.

동쪽 하늘이 붉어지고 대보름달이 솟을 무렵 횃불을 땅에 꽂아 놓고 두 손 모아 합장하며 각자 격에 맞는 풍요와 번성을 기원했다. 영월(迎月) 또는 망월(望月)이라고 불렀던 달맞이 풍속이다.

지난 주말에는 아주 특별한 보름달이 뜬다 하여 사람들을 잠 못 이루게 했다. 19년 만에 나타난 '슈퍼 문(super moon)'이다.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달 근지점(lunar perigee)'에 있을 때 유난히 크고 밝게 보이는 현상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준 20일 새벽 4시 10분, 달과 지구 중심 사이 거리가 평균보다 3만 ㎞가량 가까운 35만6215㎞로 좁혀졌다. 사진 마니아들은 흔치 않은 광경을 렌즈에 담기 위해 들뜬 모습이었지만 아쉽게도 날씨가 흐려 또렷이 보기는 힘들었다.

인터넷상에서는 슈퍼 문이 또 다른 자연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돌았다. 미국의 점성가 리차드 노렐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슈퍼문이 뜨는 지난 주말 거친 파도와 지진, 강력한 태풍을 포함한 기상 악몽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자들은 달의 인력이 조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긴 하지만 지구의 지질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기상이변으로 이어질 만큼 강력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거대한 재난이 닥칠 때면 고개를 쳐드는 '종말론'과 맞물리면서 우려는 확산됐지만 결국 기우(杞憂)로 끝났다. 보름달을 보며 풍요를 기원하기보다 재앙을 먼저 걱정하는 것은 일본 대지진 이후 자연재해에 대한 세계인의 염려가 그만큼 커져 가고 있는 탓일 게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직장 신입사원 대상 노동법 교육 '신선'

최근 회사에서 새로 입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나를 포함한 선배들이 직접 회사의 노조활동 상황과 노사관계, 조합의 운영방안 등을 설명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신입사원은 대부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조합을 제대로 인정해주는 회사, 그리고 회사 발전을 전제로 조합 활동을 하는 노조 등 참으로 보기 좋았다는 의견들이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노동법에 대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에서도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

특히 사회에 진출하기 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기업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노조는 싸움과 투쟁을 일삼는 조직인 것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동법 교육시 경영권 및 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 그리고 무조건적인 노조의 주장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배워둔다면 회사에 취직하고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들이 간부가 됐을 경우에도 올바른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재필·광주시 서구 벽진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49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경부	2200-612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디자인	2200-536
사회부	2200-616	기획사업국	2200-555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홍보국	2200-541
여론매체부	2200-621	〈FAX	222-0195〉
체육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3	〈FAX	02-773-9335〉
조사부	2200-571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